2014.7
제3호

FTA Issue Report

FTA 이행지원센터 • http://support.re.kr 콜센터 1899-4114
제3호(2014. 7. 8) 발행처_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산 체리 수입 및 국내 생산 동향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미국산 체리 수입 및 국내 생산 동향

❑ 미국 워싱턴산 체리 풍작으로 신선체리 수입량 크게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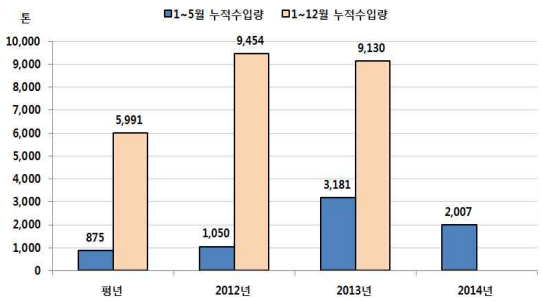
○ 체리는 주로 신선체리(HSK 2012: 0809.29.0000) 형태로 미국에서 수입됨
- 수입체리 가운데 신선체리의 비중은 87.1%(2013년 기준)임
- 수입대상국 중 미국의 비중은 93.4%이고,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도 소량 수입
- 뉴질랜드·호주산은 12월~2월, 미국산은 5~8월에 주로 수입

○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미국산 신선체리에 대한 기본관세(24%) 즉시 철폐
- 2012년 신선체리 수입량은 9,454톤으로 전년 대비 72.2% 증가
- 이후,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미국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2013년 수입량은 소폭(3.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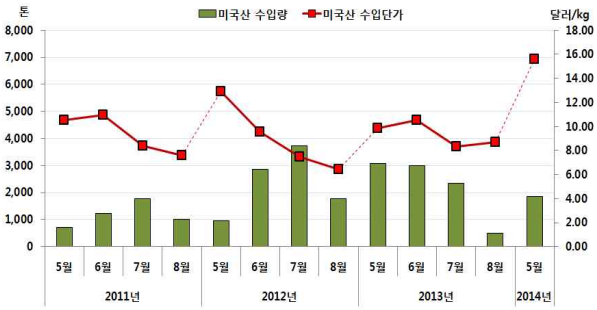
○ 2014년 미국의 체리 주산지의 풍작으로 신선체리 수입량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5월 조기 출하되는 캘리포니아산 체리의 작황부진으로 1~5월 수입량(1,936톤)은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
- 그러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워싱턴산 체리의 풍작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국내 수입업체 조사결과)

○ 워싱턴산 체리 생산량 증가로 수입가격도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5월 체리 수입가격(15.5달러/kg)은 전년 동월 대비 21.4% 상승했으나,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약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국내 수입업체 조사결과)

<신선체리 누적수입 동향>



<연도별 미국산 체리 수입 동향>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GTIS-GTA

❑ 2014년 미국 전체 체리 생산량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워싱턴주·오레곤주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산 체리의 품종은 Sweet Cherry와 Tart Cherry로 구분되며, 수입되는 신선체리는 Sweet종이고 Tart종은 가공용으로 사용됨
- Sweet종의 주산지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미시건주 순이고, Tart종은 미시건, 유타, 워싱턴, 위스콘신주 순임
- Sweet종의 연간 생산량은 33.2만 톤이고, Tart종은 13.3만 톤임(2013년 기준)

○ 2014년 Sweet Cherry 생산량은 32.6만 톤으로 평년 대비 10.2%, 전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가뭄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의 Sweet Cherry 생산량(3만 톤)은 전년 대비 63.4% 감소 예상
- 반면, 미국의 최대 체리 주산지인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의 생산량은 각각 20만 톤과 6.5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3%와 25.0% 증가 예상

<미국의 주(州)별 Sweet Cherry 생산 동향>

단위: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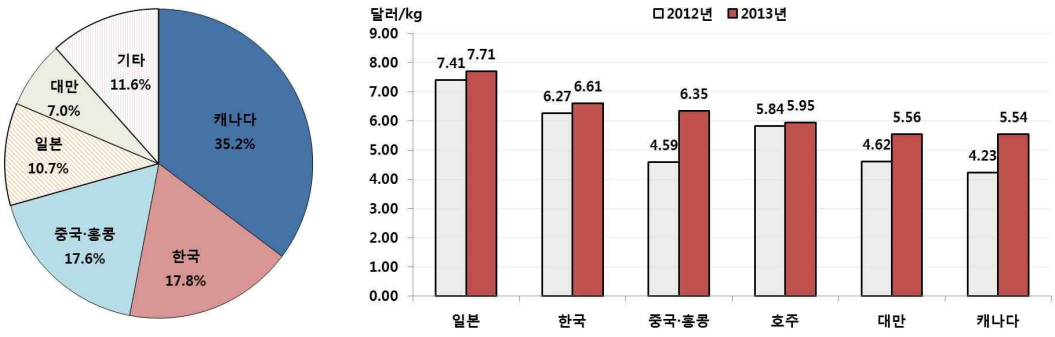
지 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총 계	442,870	313,220	334,415	424,000	331,520	326,240	-10.2	-1.6
워싱턴	245,000	156,000	196,000	264,000	169,000	200,000	-1.6	18.3
오레곤	66,000	38,650	45,500	56,000	52,000	65,000	27.0	25.0
캘리포니아	92,000	97,000	68,000	92,300	82,000	30,000	-66.2	-63.4
미시건	28,700	15,100	18,600	4,250	22,900	25,800	36.7	12.7
기 타	11,170	6,470	6,315	7,450	5,620	5,440	-19.3	-3.2

주: 2014년은 USDA 전망치이며, 평년은 최근 5개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
자료: USDA, 2014.6, Cherry Production, Quick Stat 2.0

○ 미국의 신선체리 수출량 가운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량의 비중과 수출단가 모두 높은 수준임

- 미국의 신선체리 수출량은 7만 톤(2013년 기준)이며, 그 중 2만 5천 톤(35.2%)은 캐나다로, 나머지는 우리나라(17.8%), 중국·홍콩(17.6%), 일본(10.7%), 대만(7.0%) 등 아시아지역으로 수출
- 미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캐나다로의 수출단가(F.O.B)는 kg당 5.54달러로 주요 수출대상국 중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량의 수출단가(6.61달러/kg)는 일본(7.71달러/kg) 다음으로 높음

<2013년 미국 체리 국가별 수출 점유율 및 수출단가>



❑ 최근 국내 체리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량 증가 추세

○ 2013년 전국 체리 재배면적은 120ha로 평년 대비 140%, 전년 대비 48.1% 증가

- 체리 총생산량은 586톤으로 평년 대비 111.8%, 전년 대비 65.1% 증가

○ 국내 체리 주산지는 경주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과 경기이고, 그 외에 대구, 강원 등에서도 재배

- 2013년 전체 재배면적(성과수 기준)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고, 전체 생산량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임
- 2014년 6월 초에 내린 비로 국내 최대 주산지인 경주지역의 체리 작황은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경주시 농업기술센터)

○ 국내에서 재배되는 체리는 모두 외래종이며, 과실의 크기는 비슷하나 토양 및 기후 조건이 상이하여 식감, 당도, 산도 등의 품질이 미국산에 미치지 못함

○ 국산 체리 유통은 주로 직거래, 중도매, 계통출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경주의 경우, 상품(上品)은 주로 직거래(30%)나 지역 중도매상(30%)을 통해 유통되고, 나머지는 농협(능금농협, 신경주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40%)됨

<국내 체리 생산 및 가격 동향>

단위: ha, 톤, 원/kg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08~12년 평균 대비	전년 대비
재배면적	40	44	44	62	81	120	140.0	48.1
생산량	274	289	267	236	355	586	111.8	65.1
국산 가격	8,768	7,498	9,180	10,080	10,910	10,313	10.4	-5.5
미국산 수입가격	12,650	10,159	12,210	13,189	9,780	10,724	-8.1	9.7
뉴질랜드산 수입가격	13,105	19,717	18,280	18,731	20,202	20,340	7.6	0.7

주 1) 2013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제주지역을 제외한 수치
2) 가격은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주산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이며,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CIF가격에 환율과 관세를 적용한 가격으로, 2011년까지 관세율(24%) 적용
3) 뉴질랜드의 체리가격은 당해년 12월~익년 1월까지의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수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각 년도 시·도 행정조사 자료), GTIS-GTA, 한국은행

○ 국내 체리농가의 수익률이 높아 향후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경주지역을 기준으로 체리농가의 조수입은 10a당 400~480만원으로 사과·배농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

○ 5~6월에 주로 출하되는 국산 체리는 5~8월에 수입되는 미국산 신선체리와의 경합이 불가피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체리에 대한 24%의 기본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 미국산과 국산 체리의 가격차가 좁혀짐
- 국산 체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당도를 높이고 산도를 낮추는 등의 품질 개선이 시급
-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등의 투입비 절감, 선별기 보급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